

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붙잡았다. 제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,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, 자기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쓰임 받고,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했다(요20:21, 고후5:20, 뵤전2:9).

이들은 시대마다 작은 자들이었고(사60:21-22), 소수였다.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를 바꾼 사람들은 “창조적 소수”라고 했는데,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다. 세계를 바꾸고, 세계를 살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소수, 곧 소수의 제자들이었다. 단순히 숫자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다. 세상적으로는 가장 약하고, 아무 배경 없는 자들이었다.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그랬고, 따로 부르신 70인 평신도 제자들이 그랬다. 이들이 우리의 모델이 된 마가 다락방에 모였고, 그들이 로마의 핍박과 여러 영적 문제로 고통 당하던 현장의 사람들을 살렸고, 로마까지 정복하고 살렸다. 그런데 이 시대 우리는 왜 그 축복을 못 누리는가? 제자의 정체성을 놓치고, 제자의 삶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. 제자의 삶에 대한 오해의 시작은 본문이다. “나를 따라 오려거든(제자)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”고 했다. “자기를 부인하라”고 하니 무조건나를 다 비우고 버리라는 뜻으로만 이해를 한다(종교인들의 메시지). 우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다.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다. 그때 자연스럽게 내가 없어진다. 채우지 못한 채 버리려고 하니 영적문제 온다(마12:44-45). “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”고 하니 무조건 모든 것 희생하고 죽으라고만 들린다. 본문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이 오해가 풀리고, 제자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, 축복된 삶인가를 누릴 수 있다.

1. 그리스도를 알고,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누리는 축복부터 붙잡으라(마16:16-19)

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, 무능해도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, 세상을 살릴 만한 축복이다.

이 언약부터 분명해야 한다. 각인시키고, 뿌리내리고, 체질되게 만들어야 한다. 그것이 제자 훈련이다

그리스도는 그의 권세이다.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죄와 저주, 운명과 지옥에서 해방시키셨다(롬8:1-2의 제사장). 부활하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것이다(창3:15, 요일3:8의 왕). 우리 안에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축복과 증거로 바꾸시고 미래를 책임지시는 것이다(요14:6, 계3:8의 선지자)

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(구원), 그리스도를 붙잡고(믿음),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(제자)에게 세가지 약속하셨다.

1) 반석이라고 했다. 더 이상 약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. 그리스도가 함께 한 자들이다.

①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다.

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장소이기 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.

구원받은 우리를 “성전”, “성도”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(고전3:16). 그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.

② 왜 우리 안에 계시는가? 우리가 언약하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, 보호하시고, 인도하시고, 축복하시기 위해서다. 그래서 마침내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,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이다(행1:8)

2)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다.

① 음부의 권세는 지옥에 가야 할 권세자 곧 사단을 의미한다.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?

첫 인생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(창3:5),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, 가인과 아벨의 형제 관계를 무너뜨렸다(요8:44). 사울왕을 시달리게 하고(삼상16:14), 제자들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었다(눅22:31-32)

②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,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(계17:14) 사단의 정체를 알고, 그 속임수를 알고, 그리스도의 권세로 싸우면 승리한 만큼 누릴 축복이 갑절이다(욥42:10)

3)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다.

① 우리의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다. 불신자도 위에서 축복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을 안다.

십일조 헌금을 가르치면서 약속하신 것도 이것이다(말3:10). 보좌를 바라보는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이다

② 이 언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로 하지 못할 일이 없다(요14:12-14)

2.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, 주의 일을 하는 제자들이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는가?

본문에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신 것이다. 세가지 답을 주신 것이다.

1) “너를 부인하라”고 했다.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,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이다.

똑같은 말, 사건도 내 상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.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.

① 내 경험, 내 기준과 수준이 불신앙을 만든다. 제자들이 풍랑이 불 때 두려워한 이유다(막4:35-40).

내 환경과 현실에 속지마라는 것이다.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다(사55:8-9). 그 사랑과 계획과 능력의 깊이다

② 내 상처와 숨은 트라우마가 나를 가로 막는다.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또 그게 튀어나오면서 믿음은 사라진다.

그것이 분노, 우울증, 공황 장애, 중독까지 만든다. 어떤 상처도 그리스도보다 클 수가 없다(요일4:4)

③ 세상과 육신적인 것에 대한 내 욕심이 잠긴 축복을 가로막는다(약1:14-17, 요일2:15-17)

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이 비교의식, 경쟁을 만든다. 만족을 못하게 만든다. 감사를 놓치게 한다.

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묵상하고 기도해보라.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.

2) “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”고 했다.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미션이다.

① 작은 것도 소명으로 알고 하라(마10:42, 25:40). 이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(고후2:15)

② 맡은 일에 진심을 담고 충성하라(고전4:2). 그때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빛이 된다(렘5:8)

“충성스러운”라는 말은 “믿을 만하다”(faithful), “말길 만하다”(trustworthy) “온 마음으로”(wholeheartedly)라는 뜻이다.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앙고백이다. 정답뚝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린 축복이 이것이다(민14:24).

③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때는 생명 걸고 하라(계2:10). 그때 우리의 삶은 썩는 것을 막는 소금이 된다(마5:13)

소금이 녹을 때는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시간도 이기게 하신다.

마지막 때 사단은 악한 일을 한다.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후회 없는 것이 있어도 오히려 찾을 것이라고 했다.

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지만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라는 뜻이다(영원한 기업, 작품, 유산)

3) “나를 따르라”고 했다.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다. 그 방법이 뭔가?

① 그 분이 주신 복음 따라가는 것이다. 세상은 복음 아닌 율법, 신비, 종교로 가고 있고, 종교 통합 운동까지 한다.

② 그 분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(요6:68). 사람의 소리, 소문을 따라가지 말고, 말씀으로 확인을 하라.

③ 그 분이 주시는 언약 따라가는 것이다.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으라.

결론-제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누리고, 따라가는 삶이다.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이고,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이다.

복음 따라가고, 말씀 따라가고, 언약 따라가며 모든 문제 사건에서 승리하는 참 제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